포스코, 추석 선물반송센터 운영 포스코는 2일부터 16일까지 포항, 광양 서울지역에 '선물반송센터'를 설치해 임직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명절선물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되돌려 주지 못했을 때 회사비용으로 반송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임직원 자택으로 배달된 경우에도 '선물반송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반송처리를 돕도록 한다. /포스코

기아차, KIA타이거즈와 야구 꿈나무 29명에 장학금 기아자동차와 KIA타이거즈가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야구꿈나무들에게 1억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야구유망주 장학금은 전국 초·중·고 야구선수 중 경제적 상황으로 선수생활이 어렵거나 중단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학년과 경제상황에 따라 장학금이 맞춤 지원된다. 또 지원받은 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5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차

KB證, KB청춘스타 서포터즈 5기 발대식 KB증권은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 22층 대회의실에서 'KB청춘스타 서포터즈(이하 KB청춘스타)' 제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선발된 30명의 대학생들은 활동 기간 동안 20대를 겨냥한 디지털 KB증권 서비스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첫번째줄 왼쪽 첫번째), 하우성 M-able Land Tribe장(두번째줄 왼쪽 첫번째)이 대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JB금융, 국내 금융 최초 BSI 'ISO 37001' 획득 JB금융은 2일 영국왕립표준협회가 발행한 'ISO 37001'획득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왼쪽)이 BSI 코리아 송경수 총괄 책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JB금융그룹

한투증권 전국어린이 드림 백일장 시상식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3회 한국투자증권 전국어린이 드림(Dream)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세번째줄 가운데), 이희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본부장(세번째줄 오른쪽 첫번째)이 초록어린이재단 관계자, 수상 학생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사라진 제복의 명예… 차라리 사복을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제복은 불편한 옷이다. 그 불편함에는 제복의 명예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다. 그런데 불편함은 참지 못하면서 명예만 존중해달라고 하는게 옳은 일일까.

늦더위가 떠나지 않은 9월,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더위와 불편함을 과감히 표출하는 장병들을 목격하게 된다.

경기도 이천의 한 카페에서 육군 상사 한명이 디지털 위장무늬의 반팔차림으로 후배 부사관과 빵을 먹는다. 용산역의 간부들은 베레모와 전투모를 쓰지않고 인근의 번화가를 활보하고, 상급자를 보고 경례를 하지도 않는다.

한 예비군 부대에선 예비역 소령이 훈련장에서 전투복 앞섭을 풀어헤치고 부대 내를 돌아다닌다. 전역해 빨리 예비군이 되고 싶은 맘 때문일까.휴가차 홍대에 온 수명의 병들도 맨머리로 홍대 거리를 활보한다. 담배를 입에 물면서 말이다. 보고 있기 불편하다.

반대로 군복을 멋지게 뽐내는 장병도 보인다. 간부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장과 약장을 의미도 모른채 가슴에 달고, 휴가나온 최전방수호병은 최전방경계근무 간에만 팔에 두르는 헌병완장을 차고 홍대거리에서 패션감각을 뽐낸다.

언제부터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휴가나 외출의 들뜬 기분에 잠시 흐트러 질 수는 있지만,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었을 때 감수해야 할 불편함은 보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헌병이 주요 번화가를 돌며, 군기단속을 하는 '헛군기' 유지도 옳지 않다 그렇지만 간혹 '사박사박' 소리가 나는 헌병대 군기단속반의 발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제복은 앞에서도 말했듯, 소속된 조직을 대표하고 그 조직의 헌신에 대한 명예와 존중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불편한 옷이다. 다수의 군인들은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군인본분위국헌신(軍人本分爲國獻身)'을 군복차림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 제복의 의미대로 성실히 복무하는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제복의 불편함을 감수 할 수 없다면, 계급 고하를 떠나 사복차림으로 출타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군 스스로가 제복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테니까 말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제복의 명예를 존중하는 시민문화가 갖춰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시민이 제복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각자의 제복은 개인의 사물일지언정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상징하는 옷이다. 제대로 입을 자신이 없다면, 영문 밖을 나설 땐 계급고하를 떠나 제복을 벗어두자.

/captinm@metroseoul.co.kr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민심

이상헌의 칼럼

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업산업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외식업경기지수가 65.08로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지수가 65.97로 역대 최저지수를 나타났고 4월부터는 최저지수를 경신했다. 보통 경기지수는 50~150을 기준으로 100이 초과하면 성장, 그 이하면 위축으로 판단되는 지수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수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임대료,인건비,원부재료비용의 상승을 꼽았다.

숙박업, 음식업 지수도 81.3을 기록, 5월 지수대비 6월에는 크게 위축된 66.6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 또한 97.5로 하락했다. 이는 물가의 상승과 실질소득의 감소, 불안한 경기환경에 따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물가지수는 지난 1년간 100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특히 6월을 기준으로 104.88로 체감 물가지수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지표는 각종물가 상승으로 가계수익의 건전성이 위협받았고 그로인한 지출심리의 하락으로 해석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역시 심각한 자영업시장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0월기준 1년간 폐업한 외식업소는 신규 개설된 점포대비 31.3%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의 상승과 수익성 하락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심각한 분석자료로는 직원수가 적은 점포일수록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폐업한 외식업소의 경상비중 인건비 비중은 41.3%로 살아남은 매장의 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업한매장의 평균 인건비 지출규모는 396만원으로 생존기업의 인건비 352만원보다 44만원이 많았다. 그만큼 인건비의 상승이 외식업체의 경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는 반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황도 심각한수준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식업 가맹본부의 매출은 12조1000억으로 전년도 매출 12조7000억 대비 약 6000억이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프랜차이즈 본사수와 브랜드 숫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본사나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심각한 하락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 시 철저한 경영예상분석과 수지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시 본사의 재무재표 최근 3개년치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영점과 가맹점의 수익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인사

◆**통계청** ◇ 4급 승진 △ 통계정책과 김현기 △ 통계조정과 송준행 △ 통계데이터기획과 이주원 △ 사회통계기획과 정호석 △ 표본과 정희상 △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정규승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최선주 △ 국립대구박물관장 함순섭 ◇ 국장급 전보·파견 △ 관광산업정책관 조현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박명순 ◇ 과장급 전보 △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김일

◆**양주시**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흥국증권** ◇ 신규 선임 △ 김재원 구조화종금팀장 △ 이헌모 법인영업본부 상무

◆**한국한의학연구원** ◇ 부장 △ 기획부장 송치은 ◇ 팀장·센터장 △ 한약자원연구센터장 문병철 △ 제도기획팀장 겸 홍보협력팀장 서명수 △ 총무시설팀장 이만증 △ 인재개발팀장 김기현

◆**두산그룹** ◇신규임원(상무) 승진 △㈜두산 지주부문 류정훈

부음

▲ 김정희씨 별세, 한동희(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씨 모친상 = 1일 오후 11시 30분, 충북 괴산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43-833-4440

▲ 정태용씨 별세, 정재흥(국회사무총장 비서실장)·정재준(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정재형(주부)·정재정(주부)씨 부친상, 이심미·권혜숙씨 시부상, 김동일(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씨 장인상 = 2일 오전 2시50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 053-940-8198

▲ 김순배씨 별세, 김종관(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장)씨 부친상 = 2일 오전 8시 50분, 청주 참사랑병원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4일 오전 7시. ☎043-298-9200